

제2장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 II

(1교시)

4. 매체에 대한 맥루언의 존재론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그는 매체가 인간의 몸을 확장한 것으로 본다. 맥루언은 매체 또는 매체 기술을 ‘인간의 확장’이라고도 하고(34, 91), ‘감각의 확장’(51, 97)이라고도 하고, ‘우리 자신의 확장’이라고도 하고(81, 88), ‘몸의 확장’이라고도 한다(30, 86, 118). 그런데 맥루언은 매체 또는 매체 기술을 의식의 확장이라거나 정신의 확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맥루언이 정신/몸 이분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맥루언이 인간 존재를 몸 일원론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매체 존재론에 입각해서 오늘날의 전기 시대를 우리의 중추 신경 조직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전기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간은 중추 신경 조직 그 자체라는 살아 있는 모델을 확장했다. 즉 그 모델을 자신의 외부에 설치했던 것이다. 이 정도까지, 다시 말해 마치 중추 신경 조직이 더 이상 광복한 기계주의의 투석과 화살에 맞서 보호 완충기로서의 몸 기관에 의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절망적이고 자살에 가까운 자기 단절을 생각해 하는 발전이다.”(85)라거나 “감각 마비의 원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 기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중추 신경 조직이 확장되고 노출될 때, 그것을 마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불안으로 가득 찬 전기 미디어의 시대는 무의식과 무감각의 시대이기도 하다.”(90)라거나 “컴퓨터가 의식의 과정을 모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오늘날 전기에 의한 지구 전체의 네트워크가 중추 신경 조직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망원경이 우리 눈의 확장이고 복화술용 인형이 복화술사의 확장인 것처럼, 의식을 가진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식의 확장일 것이다.”(486)이라고 말한다.

5. 맥루언은 매체에 대해 어떤 인식론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이는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그의 유명한 언명으로 정돈된다. 이는 다음 몇 가지 함축을 지닌다. 첫째, 매체가 낳는 개인적-사회적인 결과는 그 매체로 인해 새로운 감각 비율과 지각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둘째, 미디어는 관련되는 사건들의 규모나 속도 또는 유형의 변화를 통해 바로 그러한 미디어로 규정된다. 셋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보다는 매체를 통해 주입되는 바, 표현 및 이해에 관련된 무의식적인 전체적인 장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매체의 메시지다. 따라서 매체 자체인 이 메시지에 대해 매체 사용자들은 감각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도취 또는 마비 상태에 빠진다.

맥루언의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신선하게 여겨진다.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 시대가 되면 당연히 전혀 새로운 방식의 감각 및 지성적인 의사소통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구전되는 방식에서 생겨날 수 있는 원 메시지에 대한 왜곡과 불명확성에서 벗어나 이제 문자로 기록됨으로써 원 메시지를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문자 텍스트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전달

력에 대한 선입견을 역이용하여 치명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대화나 회의의 방식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생하게 함께 전달되지만, 문자 기록에 의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전달자의 현전을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 주로 문자 해독의 시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감각들에 의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삭제된다. 따라서 구전의 시대에는 통감각적인 직관이 강조되면서 힘을 발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문자의 시대에는 통감각적인 직관보다 정확하게 규정된 개념에 의거한 지성적인 이해 방식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자체는 그다지 신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같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감각 또는 지성 등의 역능들이 힘을 발휘하는 비율이 바뀌는 것 자체를 메시지라고 부른 것이 신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통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메시지의 변화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틀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매체를 인간 존재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것과 직결된다.

(2교시)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틀의 변화를 곧 메시지의 변화라고 맥루언이 굳이 특별하게 말한 것은 흔히 사람들이 표현의 형식과 표현의 내용이 떼려야 뗄 수 없이 서로 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 형식과 표현 내용의 관계는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어 놓는가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정도가 아니다.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맥루언의 언명이 진정 의미를 갖는 것은 표현 내용이 표현 형식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어내는 데 있다. 표현 형식이 달라지면 표현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표현하는 내용이 같을 수 없다. 자본주의에 의한 물신화를 회화로 표현했을 때와 시로 표현했을 때 또는 철학적인 언명으로 표현했을 때 그 표현 내용이 같을 수 없다. 맥루언 자신이 뚜렷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 형식에 의한 표현 내용 자체의 변화야말로 매체 탐구에서 근본적인 원리인 것이다.

이때 표현 내용이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뚜렷하게 경계지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표현 내용을 그저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려는 태도는 오랜 문자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되고 습관화된 지성주의적인 태도다. 얼마든지 다른 태도들이 가능하다. 예컨대 표현 내용을 표현을 둘러싸고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 효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정한 표현 내용의 외연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의 경우, 불안, 불쾌, 분노 등 심리적인 변화나 그에 따른 방어와 복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관계되는 상황들의 변화 전체를 표현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웃기고 있네. 그런 농담이 나에게 통할 줄 알아.”라고 하고서 완전히 무시해버릴 경우 그 메시지의 표현 내용은 앞의 경우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 내용을 메시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 변화의 전체 효과라고 정의하게 되면, 매체는 메시지라고 하는 맥루언의 언명이 왜 표현 형식에 의한 표현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잘 짚어내고 있는가를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예컨대 맥루언이 전깃불의 메시지

를 산업에서의 전력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철저하고 광범위하며 탈집중적(또는 분산적)이라고 하고, 그 이유로 인간의 결사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요인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할 때, 만약 표현 내용을 그저 시공간적인 제약 여부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도대체 전깃불이 메시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원리상 메시지는 표현 내용과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깃불이 시공간적인 제약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가운데 전깃불을 밝히거나 끄거나 하는 조건에서 실천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변화의 효과는 당연히 크게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표현 내용 역시 달라진다. 만약 표현 내용이 상황 변화의 전체 효과라는 점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변화 효과의 변화는 표현 내용에 대해 부수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표현 내용 자체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전깃불이 메시지, 즉 표현 내용이라는 언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요컨대, 도대체 표현 형식 즉 매체적인 조건으로부터 생겨나는 표현 내용의 성분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로 이러한 점을 맥루언의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한 인물을 유화 물감으로 그리느냐 사진으로 찍느냐에 따라 그 인물의 모습이 전달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는 표현 매체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표현 매체의 조건 자체가 표현 내용으로 전화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표현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다. 이는 “인간의 확장물인 매체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하는>(make-happen) 인자이지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하는>(make-aware) 인자가 아니다.”(91-2)라는 말로 요약된다.

6. 매체에 관해 맥루언이 주조해 낸 범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파와 외파>

“기계적 형태에서 순간적인 전기의 형태로 이행해 가는 속도를 증가시키면 외파가 내파로 반전된다. 오늘날 전기 시대에 우리 세계의 에너지를 내파시키거나 압축하는 일은 외파에 기초한 과거의 전통적 조직 패턴들과 충돌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서구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제도와 배치는 일방통행식의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패턴이 <외파적>이거나 팽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패턴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인구 폭발이나 교육의 팽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인구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결코 그 숫자의 증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기로 인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 아주 가깝게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우에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서 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과 과정의 각 부문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다가 이제는 지식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각 학문들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과 마찬가지로 전기의 순간적 속도라는 조건하에서 급속하게 융해되어 버렸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기계적, 일방적으로 팽창한다는 낡은 패턴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전기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전기는 중앙집권화시키지 않고 탈중심화시킨다.”(75-76)

“문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분화되고 시각적인 개인주의는, 전기에 의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내파에 의해 진행되는 사회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

식적으로 이러한 사실들과 직접 대결을 벌여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강압에 의해 우리가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덮어두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내파와 상호 의존이 서구인에게 가져다준 운명이 외파와 상호 독립이 부족민들에게 가져다준 운명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95)

“한 시대의 기술이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돌진해 갈 때, 인간의 지혜는 그 돌진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일어난 전기 에너지의 내파에 대해서는 외파나 확장의 논리로 대응할 수 없고, 오직 탈중앙집권화와, 다수의 작은 중심들에서 생기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대학에 몰려드는 현상은 외파가 아니라 내파이다. 그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종합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식의 정부와 19세기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앙집권화된 종합대학 대신에 자율적인 단과대학을 많이 세우는 것이다.”(121-2)

<차가운 매체와 뜨거운 매체>

“뜨거운 미디어란 단일한 감각을 ‘고밀도로’ 확장시키는 미디어이다. 여기서 ‘고밀도’란 데이터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사진은 시각적인 면에서 ‘고밀도’다. 반면 만화는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저밀도’이다. 전화는 차가운 미디어, 혹은 저밀도의 미디어이다. 왜냐하면 귀에 주어지는 정보량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정보량이 적어서 듣는 사람이 보충해야 하는 연설은 저밀도의 차가운 미디어이다. 반면에 뜨거운 미디어는 이용자가 채워 넣거나 완성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뜨거운 미디어는 이용자의 참여도가 낮고, 차가운 미디어는 참여도가 높다.”(56-7)

“우리 시대는 ‘뜨거운 형식이 배타적이고 차가운 형식이 포괄적이다’라는 원리를 입증해 주는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58)

“전통적인 종족이 가진 부족 중심의 전통적인 봉건적 위계질서가 기계적이고 일양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뜨거운 미디어를 만나자마자 곧 붕괴해 버린 것이다. 화폐, 바퀴, 쓰기 등의 미디어처럼 교환과 정보 제공을 전문적으로 가속화하는 형태의 미디어들은 하나의 부족적인 구조를 세분화하고 파편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58-9)

뜨거운 매체 / 차가운 매체

라디오 / 전화

알파벳 문자 / 상형문자나 표의문자

종이 / 돌

선진국 / 후진국

왈츠 / 트위스트

뜨거운 재즈(영화와 라디오 시대) / 차가운 재즈(영화와 라디오가 준 충격을 흡수한 이후 등장)

라디오 / 텔레비전

선형적, 인과적 / 모자이크적

과밀 도시 / 구조화된 도시

영화 / 텔레비전

신문 / 텔레비전

뜨거운 폭탄 / 차가운 전쟁(냉전)

문자 문화 / 비문자(구술) 문화

“뜨거운 미디어가 뜨거운 문화에서 사용되는가, 차가운 문화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차가운 문화 혹은 비문자 문화에서 사용된 라디오라는 뜨거운 미디어는 라디오가 오락물로 여겨지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차가운 문화나 저(底)문자 문화는 오락으로서의 영화나 라디오 같은 뜨거운 미디어를 수용할 수 없다. 텔레비전이라는 차가운 미디어가 서구의 고(高)문자 세계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적어도 영화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는 저문자 문화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68)

“하나의 감각만 높이면 최면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감각들을 냉각시키면 환각을 낳게 된다.”(71)

7. 남은 이야기들

뉴스와 쇼와 드라마를 보는 대가로 광고를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광고를 봐 주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뉴스를 제공하고 쇼를 제공하고 드라마를 제공한다. 직접 돈을 줄 수 있다면, 광고주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 인터넷 광고를 봐 주면 돈이 쌓인다.

노무현 정부가 신문사와 투쟁을 벌이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인터넷 문화가 인쇄 문화와 투쟁하는 것이다.

산 속 골짜기 시골 방벽을 도배질해 놓은 오래된 신문에서 당시 뉴스와 광고를 읽는 묘한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시간이 연속된다는 느낌, 공간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써 개인적인 용역을 벗어나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느낌이 아니겠는가.

EBS 방송을 통한 수능 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가 유지되는 한 학교 교육을 방송에 종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학교 교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지닌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오락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뜨거운 교육에서 차가운 교육으로의 전환.

국회의 다수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피라미드 형태의 순차적이고 하향 인과적인 기계 매체적인 체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매체의 장에 대한 목숨을 건 반동적인 발악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기술에 의한 횡적이고 복합적으로 되먹임 되면서 무한 확장의 생산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매체 체계는 개인적인 폐쇄성과 그에 따른 피라미드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파괴해 버린다. 콘크리트 벽 대신에 온통 유리창으로 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고서는 아예 생존할 수조차 없는 전자기적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실존주의는 범주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구조 중심의 철학을, 개인적 독립성이나 관점을 중시하는 부르주아적 정신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 관여의 철학을 제시한다. 전기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전 인류를 우리의 피부로 삼게 된 것이다.”(90)라는 맥루

언의 예언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적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새 의장인 박근혜가 천막 당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쇼를 원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또는 노골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법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대중들은 그들이 쇼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분노한다. 그들은 여전히 근엄한 성리학 전통의 사대부의 문자 문화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인편을 통해 서신을 전하는 시대에서 우편국을 통해 편지를 보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편지를 보내다가 전화가 상용화될 즈음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면 직접 편지를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전화를 하다가 인터넷 이-메일이 생겨 이-메일을 하게 되면 직접 전화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매체의 변화에 따른 예의 규범의 변화를 엿보게 된다. 이제 직접 육필(손 필기구)로 편지를 써서 안부를 주고받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밀하게 개성적이게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